

# 地方化時代의 開發패러다임과 그 開發戰略 研究

康 鶴 淳\* · 朴 贊 石\*\*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地方化를 통한 「世界化」 발전전략’은 下向式 開發패러다임과 上向式 開發패러다임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든스(A. Giddens)의 「構造化理論 (structuration theory)」을 토대로 이들 상반된 양대 개발패러다임을 통합하고 이에 입각해서 지방 발전 개발전략을 논구하고자 한다. 統合的 開發패러다임이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확대·심화 과정인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발전」 혹은 「증속」 둘 중 하나인 것으로만 규정짓는 二元論적 인식에서부터 그것을 「구조화이론」에 입각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국가로서는 발전으로 보지만 주변국으로서는 사안에 따라 증속으로 볼 수 있다는 一元論적 인식에서의 구조적 전환이다. 따라서 주변국이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 과정은 먼저, 발전이란 단독·고립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 현상’이고 또 증속은 실제적 현실임이 「構造的 二重性」 매카니즘의 학적 내면화를 토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머니즘에 입각된 생동감 넘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경제를 그러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권위 ‘밑에’ 두고 한편으로 지역민의 「자력(empowerment)」과 「능력(capacitation)」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발전략에는 이러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리공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主要語:** 世界體系, 構造化, 構造的 二重性, 解釋틀, 言語사용과 관련된 民俗方法, 實踐, 二重的 連繫性, 自力, 글로벌 패러독스.

## 1. 序 論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지구화(globalization)는 지난 시대의 ‘근대화(modernization)’와 마찬가지로 역류시킬 수 없는 자연스러운 역사현상으로서 선발 자본주의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술-경제적 과정이다. 우리의 「세계화」는 이러한 ‘자생적 지구화(spontaneous globalization)’가 우리 국가사회에 부여하는 기회와 제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인 ‘관리적 지구화(managed globalization)’라고 개념화될 수 있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인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화」는 ‘지방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올해 초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지리공간정책으로서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이러한 국토 공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에서 우리의 지난 개발정책과정을 되돌아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한 바, 확고한 패러다임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정책의 시행은 시행착오를 각오한 가시적 성과의 성급한 추구가 되기 쉽다. 시행착오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토공간정책’에 관한 한 그것은 혼란과 낙오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주기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정치 일반적 약점은 목전의 성과 및 그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

\* 慶北大學校 地理學科 講師(文學博士)

\*\* 慶北大學校 總長(前 慶北大 社會大 地理學科 教授)

아직 ‘한국 자본’의 개발 논리는 ‘도시·공업편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발패러다임이 정립되지 않은 「도농통합개발정책」의 전개는 값싼 공업공간의 확장 및 亂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폐 및 심각한 국토오염을 초래할 것임이 예상된다. 자칫 우리의 「세계화」 지리공간정책은 발전의 또 다른 걸림돌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발 패러다임 역시 「이원론」의 갈등 속에 있다. ‘하향식 개발패러다임’과 ‘상향식 개발패러다임’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 갈등의 본질은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그 패러다임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보다 현실론인 전자는 그 이론 構合을 위해 전제된 지나친 제가정의 필연적 결과인 ‘이론과 실제간의 괴리’ 및 그에 따른 역기능 증대로 인해 그러하고, 보다 이상론인 후자는 실제인 세계체계(worldsystem)를 도의시함으로써 기인되는 ‘실천적 현실성의 결여’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이원론의 개발패러다임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추구해야 한다. 기든스(A. Giddens)에 의하면 ‘내면화된 인식 혹은 지식’은 실천(praxis)<sup>1)</sup>을 산출하기 때문에, 양대개발패러다임의 인식론적 통합은 그 지향하는 목표에로의 실질적 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통합이론’인 기든스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통해 상반된 하향식·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을 인식론적으로 통합하고, 이에 입각해서 「세계화」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발전 개발전략을 논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이론의 실제 적용을 위한 연구를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에 관해 이미 발표된 필자들의 연구(康鶴淳·朴贊石, 1992)를 토대로 한다.

## 2. 兩大 開發패러다임의 爭點

### 1) 下向式 開發과 그 爭點

「하향식 개발(development from above)」이란,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균형이 국가 혹은 국제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높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기능적 통합’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지배적인 개발패러다임으로서 정태적 균형이론인 「신고전경제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개발의 기본 가정은, 개발이 외적 요구 및 혁신에 의해 추진되며 또 그것이 비교적 소수의 역동적 부문 혹은 지역의 군집(cluster)으로부터 시작되어 나머지 부문 혹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향적 개발전략은 그 본성상 도시·공업 중심적이고 자본집약적이며, 외부경제 및 규모경제의 이용 극대화를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

이 신고전 경제이론의 지리공간적 표현인 「성장거점이론」에서는, 도시가 정착화이익(localization economies) 및 도시화이익(urbanization economies)을 내용으로 하는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ies)」을 제공한다는 인식의 틀 속에서, 국가의 공간 계획은 곧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거점이론의 중심 전략은 주변으로의 「파급효과(spread effect)」를 전제로 해서, 이 효과가 보다 큰 적정 규모의 도시에 「발전선도적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입지시키는 것이며 또한 지역간 마찰과 제도의 분화를 제거·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불균형발전 모형’에 기초된 하향식개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되어 진다. 첫째는 이론의 불완전성이다. 실제 지역정책 수단으로서의 「성장거점」을 규정지우고자 할 때, 성장의 의미 및 그 지표, 거점 기준 규모의 구체적인 입지치, 거점의 중심성(centrality)에 대한 해석, 거점의 평면적 경계기준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다(朴陽春, 1987, pp. 46-47). 뿐

만 아니라, 정태적이고 비공간적 분석방법으로서 상당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투입-산출모형」(Alonso, 1975, pp. 434-450)을 토대로 하는 선도적 산업 규정의 문제점, 성장 거점과 국가의 총체적 공간체제간의 통합성 문제, 썩신 전과 과정의 미정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기간의 시간적 관점(perspective) 및 이에 따른 기업행태 연구의 간과로 인해 이 이론이 실제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요컨대, 성장거점이론의 불완전성은 신고전경제학이론에 도전하고자 하는 페루(F. Perroux)의 공간경제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신고전경제학을 실제 지리공간상에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삼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부터 기인된다(康鶴淳, 1993, pp. 26-27).

둘째는 「신고전경제이론」 그 자체의 문제점이다. 신고전경제학과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대변세력으로서,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추구가 최대한 허용되는 경제체제가 전체적으로도 최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는 발전철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이론에는 '완전경쟁'과 '생산요소의 완전한 동원'이라는 조건하에서 사적 효율성과 사회복지는 서로 일치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신고전모델은 완전고용, 동질적 단일상품, 零의 교통비용, 고정된 노동력 공급, 기술의 無進歩, 규모불변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의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정함으로써 지역소득이 균형화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위장실업이나 이중경제와 같은 개념을 수용할 수 없고, 특히 개도국 특유의 현상이며 도시화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비공식부문(bazaar sector)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朴贊石, 1982b, p. 120). 고전경제학파에 의하면 불완전 경쟁은 경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간섭, 즉 독점, 지적소유권 보호, 정부규제 등등의 결과로 여겨지지만, 오늘날의 「지식경제」에 있어서는 불완전경쟁은 경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식을 일찍 적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최초의 우위들은 영구적이

고 뒤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Drucker, 1993, p. 271) 불완전 경쟁은 더욱 고착·심화된다.

또한 신고전이론의 진전은, 개발에 있어서(지역 고유의 문화와 생산양식 그리고 토착적 유기성과 같은) 이전의 결속 원리를 토대로 한 기초 수요 충족 및 유기·통합적 자원동원과 같은 기준에 대신해서 경쟁, 효율성, 세계적 차원에서 자원이용의 최적화 및 적자생존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필요에 따른 '지역적 절대가격'과 같은 자원배분의 기준은 전세계적인 비교우위의 개념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지역공동체들의 개발수준과 부는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동원할 수 있는(물질적, 문화적, 제도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것들은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수입재와 상호 교환되는 자신의 수출자원이 '외부로부터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받는가'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운명은 외부의 상품과 요소시장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외부 기능단체들의 '객관적' 메카니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째는 「파급효과(spread effect)」 논쟁이다. 이 공간불균등개발 이론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제개발은 소수의 중심지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이 개발의 혜택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낙후지역 혹은 침체지역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된다고 하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康鶴淳(1993, pp. 32-33)의 연구에 의하면,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입각한 공간철학, 일반생태학(general ecology)적 관점,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작동원리, 「過도시화(hyperurbanization)」<sup>2)</sup> 현상, 그리고 지역문화생태체제와 관련된 파급효과의 물이론성 때문에, 특히 제 3세계에서는 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파급효과」 검증을 고찰해 볼 때, 선진국에서는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격차의 수렴현상이 다양한 수준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나, 후진국에서는 결코 저절로는(市場原理에 의해서는) 성장거점의 「파급효과」에 의해서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sup>3)</sup>.

‘위로부터’의 개발전략이 지배해온 지난 30년간 생활수준의 불균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양측에 모두 해당한다(Stohr, 1988, p. 47). 특히 개도국들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Friedmann, 1988, p. 101). “오늘의 「지식경제」에 있어서는, 불완전경쟁이 경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식을 일찍 적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최초의 우위들’은 영구적이고 뒤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Drucker, 1993, p. 271)”, 이 우위를 선점한 자본주의 중심국들의 필요를 기본 동인으로 하는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지역격차, 과학·기술의 지역격차, 경제의 무국경화와 대조되는 정치적 국경의 증대로 인해 21세기의 인류는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Kennedy, 1993, p. 5).

## 2) 上向式 開發과 그 可能性

「상향식 개발(development from below)」은 심화되고 있는 개도국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영토 내부의 기능적 통합’과 ‘내적 자립의 제고’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상향식개발의 기본 목표는, 국가 또는 국제적인 규모에서 몇 가지 요인들만 최적화하여 지역경제의 특별한 인적·물적 자원만을 골라내는 하향식 개발방식과는 달리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개발하여 리차드슨(H.W. Richardson)의 소위 「創發的 성장(generative growth)」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정책은 ‘아래로부터’ 동기화되고 일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상향식 개발론자들은, 본질적으로 하향식개발은 가치체제와 인간의 행복에 대해 확실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개발전략은 자연조건의 현격한 차이 및 문화의 역사적, 지역적 다양성에 따른 가치체제와 기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확실적인 발전개념과 개발방식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자

주·자립적 생명력(viability)을 쇠락시킨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풍요한 지역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면 전자는 후자와 똑같은 사회, 문화, 정치, 제도적 기준들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들간에는 광범한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경제적 결정인자들에 의해’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이들은 또한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후진지역들에 대한 개발은, 일정 수준의 ‘선택적 공간폐쇄’를 전제로 외부의 경제 및 그 밖의 상호작용들이 그들 자신의 自決的인 사회적 기준을 따르도록 해서 지역의 고유한 제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전략은 기초 수요지향적 노동집약적이고, 보다 소규모를 추구하며, 또한 지역자원에 기초된 당해 지역 중심의 적정기술 사용을 우선한다.

개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러한 철학의 변화를 반영해서 대두된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은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쳐 일단의 종속이론가들과 균형개발론자들 그리고 유엔 산하 여러 기관들에 의해 제기되고 주창되었지만,<sup>4)</sup> 그것이 극복하고자 하는 하향식 거점개발 전략에 비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규범적 당위성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념을 토대로 하는 이러한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은 그동안 修辭的으로 학계에서 지원을 받아 오긴 했지만 아직은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패러다임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에서 볼 때, 통일된 명료한 그 전략의 제시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문화적 획일성으로 환원되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둘째, 이와 비슷한 접근들이 여러 소규모 지역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행해졌던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지만<sup>5)</sup>,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 개도국의 정치구조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개발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정 지역 및 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확실한 정치개혁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일반적 정치상황은 가시적 외형적 성장이 우선됨으로써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sup>6)</sup>, 「확산-수렴」이라는 윌리엄슨(J. G. Williamson)의 명제에 경도되어 있는 정치권력과 서구편향적 지식을 내면화한 개도국의 개발엘리트간의 결합에 의한 「푸코(Foucault)적 왜곡」이 항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근본적으로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서, 세계를 이처럼 매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인간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Stohr, 1988, p. 79). 따라서 상향식개발이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비록 국내 및 국가 수준에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구조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들간, 지역들간, 그리고 개인들간의 패권주위적 긴장과 이기적 경쟁이 과연 완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 3) 兩大 開發패러다임의 矛盾 및 難題

하향식개발과 상향식개발, 이들 두 상반된 패러다임의 개발방식은 순수한 형태로는 현실에 있어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념적 구성물(constructs)이다. 오늘날과 같은 전세계적 체계의 그도 상호작용관계 시대에 있어서 실제 상황은 언제나 양자의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다(Stohr, 1988, p. 47). 즉, 상이한 국가 또는 지역적 상황에서는 이 두 패러다임의 요소들이 시간적인 선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합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개발전략 유형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운신하기 어려울 만큼 이들 양자간의 모든 상호관계를 단절시키고 소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형의 외적 영향에 대해 선택적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해 두 상반된 개발패러다임을 인식론적으로 통합해서 현실적인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패러다임의 본질적 모순 및 그 실천상의 난제에 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검토해 볼 때, 지난 30년간의 지배적인 신고전경제이론 속에서 육성되어 온 하향식개발의 「성장거점이론」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 모순을 안고 있다. 하향식개

발은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균형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높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기능적 통합'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다. 반면에 신고전경제이론은 자본주의경제의 중심 이론으로서 '완전경쟁'과 '생산소요의 완전한 이동'이라는 조건하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가 최대한 허용되는 경제체제가 전체적으로도 최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는 철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의 주된 전제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私的인 의사결정인 바, 이는 전술한 바의 '위로부터의' 개발 매카니즘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개발이 서구의 지배적인 개발패러다임이 되어 왔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 모순은 (가) 신고전경제학 또는 실증주의적 경제학이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유재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의 이동·분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나) 이 개발이론이 당시 두 개의 초강대국 체제가 발전하는 과정과 맞물려 왔기 때문이다(Stohr, 1988, p. 56). 따라서 이 패러다임이 안고 있는 실천적 문제점의 핵심은 세계자본주의 속성 및 이와 관련된 주변국의 종속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거점이론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고찰해 볼 때, 여기에는 아직 실제적인 실천적 개발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sup>7)</sup>. 전술한 바와 같이, 상향식 개발에는 그 이념상 성장거점이론의 도시화·공업화 정책과 같은 획일적이고 유일한 전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를 갖는 여러 지역들이 자신들 개개에게 적합한 개발전략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다양한 규모의 지역에도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향식개발의 근본적인 난제이다(Stohr, 1988, pp. 46-47). 환언하면, 상향식개발의 실천적 과제는 개별의 주체적 발전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고의 저류에는 발전이란 개별·고립적 현상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세

세계계(world-system) 현상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절대지배적인 지금의 세계적 현실에서 상향식개발의 실천적 과제는 결국 '세계자본주의체계 내에서의 자주적 발전'이라는 명제의 달성에 있다. 그런데 '세계자본주의체계 내에서의 자주적 발전'이란,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다름 아닌 '세계자본주의체계 내에서의 종속의 극복'이라는 명제와 같다. 따라서 상반된 양대 개발패러다임의 현실적인 실천적 과제는 공히 '종속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제 3세계국가들로서는 종속의 실천적 극복이 극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왔다. 이는 종속의 인식론적 극복이 '학적으로 내면화'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접근되어 왔기 때문이다.

### 3. 兩大 開發패러다임의 統合과 그 實踐的 課題

#### 1) 從屬的 認識論的 克服과 兩大 開發패러다임의 統合

이상에서 논구한 바와 같이, 하향식·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통합이란 실재에 있어서 종속의 인식론적 극복을 '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종속의 인식론적 극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학적 내면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종속의 극복이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확대·심화 과정'을 두고 그것을 「발전」 혹은 「종속」 둘 중 어느 하나인 것으로 二元論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一元論적인 학적 인식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학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해 기든스(A. Giddens)의 「構造化理論(structuration theory)」에 입각해서 중심-주변국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세계체계 현상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중심국-주변국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권력(power)' '제재 및 허가(sanction)'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양자간의 의사소통은 '해석틀(interpretative scheme)'을 매개로 해서 가능하다. '해석틀'은 이들 양

자간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이들 양자에 의해서 이용되어 지는 축적된 「지식의 표준화된 요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틀은 상호지식(mutual knowledge)의 핵심을 형성하며, 또한 이 상호지식에 의해서 '피차 설명가능한 의미의 보편성'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 '설명 가능성'은 어의규칙(semantic rules)의 이해 및 습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어의규칙들이 엄격히 적용될 수 없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민속방법(ethnomethods)'의 자유로운 구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sup>9)</sup>, 이를 토대로 하는 해석틀이 양자간에 다를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해석틀을 매개로 하는 양자간의 의사소통이 온전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들 양자간의 해석틀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 및 허가(sanction)'를 토대로 행사(actualization)됨으로써 '상호작용의 유형화를(재)생산하는 권력'에 대한 '의미(signification)' 및 '정당성(legitimation)'에 대한 견해가 양자간에 서로 달라진다. 즉 중심국가들로서는 상호작용의 세계적 확대·강화가 체제 발전으로 의미되어 정당화되지만, 주변국가들에게는 이것이 종속의 심화로 인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 실현화의 매개인 '분배자원(allocative resources)' 및 '권위자원(authoritative resources)'이 중심국들에게는 제재 및 허가에 대한 규범적 수단(facility)인 것으로 당연시되지만 주변국들로서는 '종속의 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종속이란 중심국은 자신의 '해석틀'을 주변국에게 강요하고(즉, 자신의 해석틀에 입각한 '의미 및 정당성'의 토대 위에서 '분배 및 권위자원'을 매개로 상대에게 '제재 혹은 허가'를 행사하고) 주변국은 그 강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다양한 '정황'에 있다는 사고이다.

상호작용의 규범적 성격은 상호작용의 '이중적 연계성(double contingency)'<sup>10)</sup>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 연계성은 행동(conduct)의 규범적 제도화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에도 밀접히 관련되어 진다. 즉 상호작용의 이중적 연계성 때문에 권력관계란 자율성과 의

존성간의 조정된 관계이므로, 이들 양자간의 체계 내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대등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석틀'이 다름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안전성 때문에 '세계체계의 기반이 되는 구조(structure)'의 재생산 과정에는 항상 알력이 내포되어 있다. 세계체계의 확대·심화 과정을 두고 체계 중심국은 「발전」으로 인식하고 반면에 주변국은 「종속」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알력의 표출이다.

여기에서 볼 때, 특히 「언어사용과 관련된 민속방법」과 「상호작용의 이중적 연계성」에 관한 내용을 주목해 볼 때, 세계자본주의체계의 확대·심화 과정을 발전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중심국의 (지배)이데올로기이고 또 그것을 종속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주변국의 (도전)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종속의 인식론적 극복'이란 그것을 이상과 같이 「구조화이론」에 입각된 그대로 인식해서 내면화는 것, 즉 그것을 「발전」 혹은 「종속」 둘 중 어느 하나라고만 규정짓는 二元論적 인식에서부터 그것을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종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一元論적 인식에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下向式 개발패러다임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확대·심화 과정'을 「발전」으로 인식하고, 반면에 上向式 개발패러다임은 그것을 「종속」이라

고 인식한다. 따라서 統合的 開發패러다임이란, 하향식개발이나 상향식개발을 두고 「발전」 혹은 「종속」 둘 중 어느 하나라고만 규정짓는 이원론적 인식에서부터 그것을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일원론적 인식에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 2) 開發패러다임간의 方法論 爭點

그러면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의 종속극복 방법론과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쟁점이 제기된다. 이 쟁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각 개발패러다임간의 제반 인식의 차이를 비교·고찰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볼 때,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에서는 주변국은 중심국과 마찬가지로 '하향식개발과정'을 발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 양자는 상호 긍정·우호적이다. 그리고 「확산-수렴」이라는 윌리엄슨(J. G. Williamson)의 명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제도적 문화적 통합이 그 방법론의 주요 근간이 된다.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에서는 주변국은 중심국도 자기네와 마찬가지로 '하향식개발과정'을 종속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 양자는 상호 부정·적대적이다. 따라서 기존 상호작용체계를 타파(혁명)하거나 혹은 필요한 수준의 영토공간

표 1. 개발패러다임간의 방법론 비교

패러다임 인식	하향식 개발패러다임	상향식 개발패러다임	통합적 개발패러다임
세계체계 재생산 메카니즘 인식	「구조화과정」에 관한 학적 인식이 없다.	그것에 관한 학적 인식이 없다.	그것에 관한 학적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발전」 인식	외부적 동인(중심국의 필요)에 의한 개발의 확대·심화 과정이 「발전」이다.	그것은 「종속」이다.	그것이 중심국으로서는 발전이고, 주변국으로서는 종속일 수 있다. <sup>11)</sup>
중심국 주변국간 상호인식	상호 긍정적이다.	상호 부정적이다.	사안에 따라 상호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시간-실천 인식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적인 상호작용체계가 달성된다.	그럴수록 종속적인 상호작용체계가 고착·심화 된다.	인정기간 실천에 의해 구조가 목표지향적으로 재생산된다.
방법론	지역간 마찰 및 제도 분화의 제거·감소	기존 상호작용체계의 타파, 선택적 공간폐쇄	합의적 양식과 수준의 선택적 공간폐쇄, 자력지향의 실천

적 고립정책을 통한 「자력갱생」만이 종속권을 약화·제거시킬 수 있는 발전정책이 될 수 있다.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에서는 실천(praxis)에 의해 구조가 목표지향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화과정」에 관한 「학적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구조재편은 방법론에서 제외된다. 세계체계내에서 「합의」된 양식과 수준에서 선택적 공간패쇄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인식의 내면화로부터 산출되는 「자력지향의 실천(praxis)」이 그 중심 방법론이 된다.

### 3) 統合的 開發패러다임의 實踐的 課題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란 개발패러다임과 관련된 종속의 인식론적 극복을 학적으로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역시 「종속 극복」이라는 명제의 달성에 있다. 실천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인식적 측면의 과제로서는 첫째, 「체계현상」의 기반이 되는 구조(structure)가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인 「구조화과정」에 관한 학적 인식을 내면화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종속적 현실을 실제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sup>12)</sup>.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바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knowledgeable and capable subject)이며 또 인간만의 지혜인 논증적 통찰(discursive penetration)은 구조화과정을 통해서 구조간 재생산될 수 있는 최초의 발생적 전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지닌 주체적 존재인 인간에 내면화된 인식은, 의도되어지지 않은 결과라는(즉 무의식이라는) 맥락에서, 실천(praxis)을 산출한다. 따라서 종속적 현실의 인식은 「自力지향의 實踐」을 산출하고, 또 「構造의 二重性」 메카니즘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산출·축진된 「자력지향의 실천」은 세계체계의 구조를 바로 그 「자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재생산할 수 있다. 요컨대, 발전이란(단독·고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현상」이고 또 종속은 주변국으로서의 사안에 따라 실제적 현실임이 「구조의 이중성」 메카니즘에 관한 학

적 기반<sup>13)</sup>에서 인식되어 내면화될 때, 종속과 구조주의적 결정론이 극복될 수 있고 따라서 제3세계의 발전은 낙관론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극복을 위한 실천적 측면의 핵심적 과제는 (초국적)자본의 「경제공간(economic space)」이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에 기초되어진 「생활공간(life space)」을 붕괴시키는 현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특정 현상의 효과는 상대의 동조에 의해 보다 극대화된다」는 상식적 진리로부터 논구되어 질 수 있다. 즉, 경제이익至上주의인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활세계 붕괴는 「경제至上주의적 개발」의 場에서 보다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제3세계의 경제지상주의는 외국시장 개척을 전제로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국가경제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밀접히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지상주의가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무방비적으로 불러들리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생활세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초국적 자본의 증대하는 오만에 저항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휴머니즘에 입각된 생동감넘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political community)」 그 자체이다(Friedmann, 1988, p.94). 따라서 도시, 농촌, 그리고 국가라는 역사적 생활공간을 이윤추구에 눈이 먼 자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그러한」 지역의 정치권위 「밀에」 두고 지역민의 「자력(empowerment)」을 증대시켜야 한다(Friedmann, 1988, p.93, pp.216-230)”. 나가미네(長峯晴夫, 1988), 프리드만(J. Friedmann, 1988), 그로스먼(L. Grossman, 1981), 드러커(P. Drucker, 1993), 하버마스(J. Habermas, 1984), 강학순(1993)의 연구에 의하면, 「자력」은 지역민의 민주역량 및 자치능력 증대,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균등 해소, 국토·환경 건강성 증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전통의 창달, 정보 및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에의 균등한 접근,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의사소통에 의해 증강될 수 있다.

#### 4. 結論—地方發展 開發戰略—

이러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실천과제로부터 원론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의 정책목적들을 지방에서 결정되어진 욕구들과 결합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영토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인의 「자력」에 의한 적절한 형태의 지방중심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토공간조직(예컨대, agropolitan 모델과 같은 지리적 공간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러한 영토공간조직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및 의사가 민주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소통되어, 모든 지역민이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social power)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 및 교통·통신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 지역민의 「자력」증강을 위해 自治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지역의 고유문화가 창달되고 국토·환경의 건강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개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통합적 패러다임의 개발전략은 최초의 지역개발에서부터 시행되어야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줄곧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에 경도된 도시·공업중심의 개발정책에 의해 이미 영토공간조직 및 사회조직은 중앙통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빈곤하고 배우지 못한 지역민에게는 '사회적 기회균등'이라는 민주 원리가 별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농촌 지방민은 자치하는 경험을 쌓지 못해 「자립」이 결핍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농촌지방의 인적·물적자원은 이미 도시로 흡수되었고(back-wash) 묵히고 있는 농지는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고유문화는 점차 위축·소멸되어가고 있으며 국토환경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당장의 통합적 패러다임의 개발정책 시행은 그 의미가 크게 감소된다.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은 감정적으로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농촌·농업중심의 개발이 실질적인 통합적 패러다임의 개발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토대로 해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된 상기의 지역개발전략을 종합해 우리나라의 지방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논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점인바, 「세계화」발전의 토대인 지방발전은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초되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도시 빈곤계층가구의 최저 60%에서 최고 80%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가구이다. 이들은 대외종속적 공업화의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폐로 인해 도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지 못한채 농촌을 떠난 가구들로서 도시빈민계층으로 전락되었다(이철우, 1994, p.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지금 대다수인 '중·소농의 분해'와 기업적 '소수 대농의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재개발을 암묵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과는 달리 극도로 조밀한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이러한 (농촌)정책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체 인구의 도시집중정책이 된다.

거의 전인구의 도시집중을 전제로 한 도농통합은 결국 값싼 공업공간의 확장 및 亂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심각한 국토환경의 피폐와 식량의 외국의존심화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는 궁극적으로, 지방곳곳의 다양한 민족 문화를 쇠퇴시킬우려가 크다. 요컨대 「세계화」발전에는 지방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방발전은 농촌·농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농촌·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지역에 엘리트(지식과 기술을 가진 생산연령층)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교통,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농촌의 완벽한 정주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우리의 발전전략에서 보면 비능률적일 수도 있지만, 「지방의 발전을 통한 세계화발전」이라는 개발명제에서 본다면, 엘리트의 농촌정착을 토대로 한 「세계화」의 주체적 토대(selfhood) 형성이 지방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3) 세계각국의 지역개발정책에서 활용된 「성장거점전략」의 경험적 사례에 의하면, 자족성장규모 이상의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과의 통합은 이들 양자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이재하, 1994, p.104; Friedmann, 1988, pp. 187-200). 따라서 농촌정주체계는 중심지(도시)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면서도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저지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소)도시·농촌 연계 못지않게 농촌-농촌 혹은 농촌-마을간의 연계를 중시하는 교통·통신체계를 개선·확충해야 함과 동시에 리·동까지 완벽한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첫째, 농촌지역 내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을 확충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요소 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비의 감소를 가져온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 증대를 통해 지역 내의 가공, 구매, 시장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발전의 초석이 되는 개발전략이다.

(4) 국가 수준에서 도시체계와 교통체계는 영토통합지향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경제사회체계의 기능적 방향성」과 「도시 및 교통체계의 유형」간에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강한 외부지향적인 도시 및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예컨대, 이전의 브라질 그리고 일체의 효율적 식민지 경영을 위해 개발되었던 한국의 교통체계), 보다 내부지향적 도시 및 교통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자립적 개발로 전환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 신중히 고려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기존의 자생·내발적 地緣産業 혹은 農村工業은 적극 육성하고, 새로운 농촌공업의 육성은 기존의 지역문화생태체계(최소한 기존의 지역생업체계)<sup>15)</sup>와의 적응을 고려한 업종, 규모, 그리고 기간을 면밀히 연구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향식개발로 편향되어 그 역작용이 증대된다.<sup>16)</sup> 지방의 농어업관련

산업에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 직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농어촌산업은 지역민의 민주역량 및 「자력(empowerment)」 증대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6) 지방의 지연산업이나 농촌공업은, 수많은 공장이 전국 도처에 산재해서 지역공동체(community)를 이루게 되는 입지적 특성상, 그 개발 및 운용에 있어서 「엄격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공업단지」의 입지는 주변 농촌지역으로의 직접적인 「파급효과(spread effect)」보다는 공단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단이 산출한 경제는 국가재정정책을 통해서 농촌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이다.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 볼 때, 특히 주변국에서는 성장거점이론의 핵심인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기든스의 「구조의 이중성」 메카니즘에 의하면 「공간」과 「사회」는 상호 재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특히 정주개발에는 각 지역마다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전승·발전될 수 있는 지리공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전래의 「잔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잔치란 어떤 경사를 매개로 해서 마을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하버마스(J. Habermas)적 담론」의 場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이상적인 담론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능동적인 자립·자치력이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궁극적으로는 최첨단 과학기술 지역과 목가적인 촌락사회간에 어떤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속의 촌락형 소자본 농촌공업과 도시의 몇가지 업선된 고도의 기술공업, 이 양자를 보호 또는 촉진하도록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註

- 1) 본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용어로서 「역사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환언하면, praxis란 역사의 기반 혹은 구조를 재생산하는 作因(agent)으로서의 실천이다(따라서 이론에 대한 對 개념으로서의 practicc와는 그 함의하는 마가 별개이다).
- 2) 인 3.5% 이상의 증가율로 20년만에 도시인구가 倍加되는 정도의 도시화를 말함(Friedmann, J., 1973, pp.91-94). 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고용기회와 관계없이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다. 도시에 고용기회 없이 인구만 집중된 상태에서도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일어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朴贊石·權泰俊, 1987, p.54). 1960~1975년 우리나라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9.3%를 기록했다.
- 3) 이에 관한 문헌적, 실증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 康鶴淳, 1993, pp.67-93.
- 4)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은 A.G. Frank의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1966); T.D. Santos의 The Structure of Dependence (1970); J. Galtung의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1972) 등 소위 인단의 종속이론가들: I. Sachs의 Alternative Patterns of Development: Ecodevelopment(1976); J. Friedman의 Agropolitan Development(1975); 「유엔개발 제1차 10년 계획(1961~1970)」의 추진에서 성장거점개발 전략이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에 유용한 처방전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남으로써 ILO(1976), 세계은행(1972) 등에 의해 제기되고 주창되었다. 그리고 유엔의 지역 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유엔 관련 계획기관들의 프로그램들 속에 도입되었다.
- 5) 인도 비하르(Bihar) 지역의 산탈운동(Santhal Movement), 아디바시(Adivasi) 토착민의 몇몇 집단에 의한 농군운동(Bhoomi Sena); 방글라데시의 랑푸르(Rangpur) 자립운동;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샤라마다나(Sarvodaya Sharamadana) 운동; 볼리비아의 케쉴야 알토 발레(Qucchua Alto Vallo) 협동사업; 페루 푸노(Puno)주의 알티플라토(Altiplano)에 대한 농업개발사업; 한국

- 의 초기 새마을 운동; 파키스탄의 다우자이사업(Daudzai Project)과 만세라(Mansehra)지구 사회개발사업.
- 6) 이는 일정 기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 7) 이 방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Tinbergen et al.의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1976); Nerfin, Another Development(1977); Friedmann과 Douglass의 Agropolitan Development(1978); Sachs Ecodevelopment(1976), 그리고 W. Haque (et al.) Towards a Theory of Rural Development(1977) 등이 있다.
- 8) 이는 다음의 구조화 메카니즘 연구를 토대로 함. 康鶴淳·朴贊石, 1992, pp.134-135.
- 9) 즉, 이들 양자간의 각기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축적’에 의한 각기 상이한 지식체계, 상이한 인지체계, 상이한 우주체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 10) Giddens, A., 1979, p.86: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편에서의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연계적 반응에 의존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은 그 상대자의 행위에 대한 잠재적 제재이며 그 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부연컨대, 상호작용의 이중적 연계성 때문에 경제적·군사적 약소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종속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11) 여기서 재차 주목할 점은 ‘인식론적’ 통합이라는 언술이다. 완전한 존재론적 일원론통합에서는 ‘발전-종속’이라는 對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일원론통합은 대개념을 인식하는 ‘이원성적 일원론’이고 그 실천적 행위는 「절충」, 즉 대개념을 인식하는 이원성적인 다양한 수준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 12) 대부분의 제3세계 정치권력은 종속적 현실을 실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체계(system)란 유형화된 상호작용(patterned interaction)이다. 상호작용의 유형화는 파우위를 전제로 하며, 파우위는 「제재 및 허가」를 내용으로 해서 행사(actualization)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농업과 무기산업에서 확실한 국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운용에 국가 장래가 걸려 있는 미국(D. Bell, 1993, pp.229-230)」은 무엇을 가지고 「제재 혹은 허가」해서 파우위를 행사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지가 자명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 부분의 제 3 세계 권력-지식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됨으로써 “중속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연속선상에서 제국주의론의 아류로 단정되어 그 현실고발적인 실천성만이 주로 비난되었고, 그 분석의 틀이 지니는 유용성 여부는 관심의 근간이 되지 못함으로써 보다 自我準據인 發展에로의 자극이 될 수 없었다(林玄鎭, 1988, p. 2)”.
- 13) 구조 이중성 메카니즘에 관한 詳解는 다음을 참고. 康鶴淳·朴贊石, 1992, pp. 131-133.
- 14) Appalaraju, J. and Safer, M., 1976, “Growth Center Strategies in Less-developed Countries”, in A. Gilbert(ed.), *Development Planning and Spatial Structure*, Wiley & Sons, London; Taafe, E.J., Morris, R. and Gould, P.R., 1973. “Transport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in B.S. Hoyle (ed.), *Transport and Development*, Macmillan, London.
- 15) 스투어드(J.H. Steward)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 생태계에서 생계활동(subsistence activity)과 경제제도(economic arrangement)가 문화핵심(cultural core)이기 때문이다.
- 16)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 康鶴淳, 1993, pp. 140-144.

## 文 獻

康鶴淳·朴贊石, 1992, “기든스(A. Giddens) 「構造化理論」의 地理學的 含意와 文化景觀 解釋”, *地理學*, 27(2).

康鶴淳, 1993, “地域發展에 관한 文化生態學的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성훈 외, 1991, *한국농업 이길로 가야한다*. 비봉출판사, 서울.

朴陽春, 1987, “空間發展理論에 關한 研究”, *社會科學研究*, 慶北大 社會科學研究所, 3.

朴贊石, 1982b, “地域發展의 理論의 接近(II)”, *社會科學*, 慶北大 社會大. 1.

朴贊石·權泰俊, 1987, “80년대 地域開發 政策과 評價와 向後 方向定立에 關한 研究”, 國土開發研究院.

柳佑益, 1984, “國土開發에 있어서 農村開發의 意義”, *地理學*, 제30호.

柳佑益, 1989, “국토의 재인식 : 문제와 미래상”,

*地理學論叢*, 별호 7.

이재하, 1994,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개발론적 접근”, *대구·경북지역동향*, 23(6).

이철우, 1994, “빈민의 형성배경과 경제활동상태”, *대구·경북지역동향*, 22(5).

이희연, 1985, “중속이론과 지역개발”, 지방의 재발견, 민음사, 서울.

林玄鎭, 1988, *現代韓國과 從屬理論*, 서울大學校 出版部.

조명래, 1985, “代案의 방식으로서의 上向的 地域개발”, 지방의 재발견, 민음사, 서울.

주정화, 1993, *선진농정-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현지 르포르-*, 지혜원, 서울.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서울.

황명찬, 1984,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개발의 방향”, *국토계획*, 19(2).

長峯晴夫, 崔栢哲·林成洙(譯), 1988, 第3世界의 地域開發—그 思想과 方法, 裕豐出版社, 서울.

그롭소프트테크놀로지 저, 박준영 역, 1992, *10년 앞을 내다보자*, 국일문학사, 서울.

Drucker, P.F., 李在圭 譯, 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韓國經濟新聞社, 서울.

Kennedy, P., 邊道殷·李日洙 譯, 1993, *21세기 준비*, 韓國經濟新聞社, 서울.

Stohr, W.B., Taylor, D.R.F.(eds.), 1988, *地域計劃研究會 編譯, 辨證法的 地域開發論*, 明寶文化社, 서울.

Abdalla, J.S., 1978, “Heterogeneity or Differentiation—the end of the Third World?”, *Development Dialogue*, 2.

Alonso, W., 1975, “The Economics of Urban Size”, in J. Friedmann & W. Alonso(eds.),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MIT Press, Massachusetts.

Barney, G.O. et al., 1980,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U.S.: Entering the 21th Centry*, Vol. 1, Pergamon Press Inc., New York.

Bell, D., 서규환 옮김, 1993, *정보화사회와 문*

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서울.

Friedmann, J., 1988, *Life Space and Economic Space: Essays in Third World Planning*, Transaction, Inc., New Brunswick.

Giddens, A.,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Macmillan Press Ltd., London.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Press, Cambridge.

Grossman, L., 1981, "The Cultural Ecology of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2).

Har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London.

Higgins, B., 1978, "Development Poles: Do They Exist?", in F. Lo & S. Kamal(eds.),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ergamon, New York.

Jeongman, Lee, 1991, *The Generation of Sacrifice: Modernization and Korean Farmers*, Ph. D. dissertation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Kellerman, A., 1987, "Structuration Theory and Attempts at Integration in Huma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9.

Lewis John P. and Valeriana Kallab(eds.), 1986. *Development Strategies Reconsidered*, Transaction Books, New Jersey.

Munoz, H.(ed.), 1981, *From Dependency to Development: Strategies to Overcome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Westview Press, Inc., Boulder.

## A Study on the Local Development Paradigm and Strategy in the Era of Localization

Hak-Soon Kang\* · Chan-Suk Park\*\*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wo opposite paradigms, 「development from above」 and 「development from below」, by means of A. Giddens's 「structuration theory」 and to provide practical development strategies on the basis of integrated paradigm.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opposite paradigms is in fact the internalization of epistemological overcoming of 'dependency', which mean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dualistic thinking into monistic thinking that the enlargement

of capitalist world-system can be 'development' and it may also be 'dependency'. Therefore the practical main issue of this integrated paradigm results in how peripheral countries should achieve self-reliant and continuous develo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of dependency. To achieve such development while resisting the growing arrogance of transnational capital,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to make revitalized political community designed to fit a human scale and for the economy to be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will of the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the 'empowerment' of people should be strengthened.

\*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world-system, structuration, the duality of structure, interpretative scheme, ethno-methods involved in language use, praxis,

double contingency, empowerment, global paradox.